

삼성전자, 소외이웃 3만 가구에 부식품 전달

256개 시설 찾아 '희망나눔 봉사활동'

삼성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희망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10억원 상당의 부식품 세트를 전달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256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밀가루·된장·식용유·참기름 등 총 12종으로 구성된 부식품 세트를 전달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실시했다.

또 삼성전자 DS부문 LED반딧불 봉사팀은 지난 8일 용인노인복지센터와 어르신들을 찾아 새해 인사를 하고, 부식품 세트를 전달했다. LED반딧불 봉사팀은 2014년부터 경기도 용인 지역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8일 삼성전자 DS부문 LED반딧불 봉사팀이 교체해 준 LED등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삼성디지털시티) 김병일 사원대표와 임직원 30명은 같은 날 경기도 수원에 있는 버드내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부식품 세트를 전달하고, 수원 지역 어르신 70명과 함께 만두를 빚고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부터 11년간 매년

설과 추석마다 '희망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95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도 삼성전자가 후원한 부식품 세트를 전국 취약계층 3만2000가구에 전달하고, 떡국 나눔 등 봉사활동도 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metroseoul.co.kr

홈쇼핑 전직원에 평창올림픽 티켓 지급

홈&쇼핑

홈쇼핑은 평창 동계올림픽 동참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1억4000여 만원을 들여 전 임직원들에게 올림픽 기간 열리는 다양한 경기의 관람티켓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람티켓은 오는 25일 폐막식을 비롯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종목 뿐만 아니라 ▲알파인스키 ▲노르딕복합 ▲스노우보드 등 다양한 종목의 티켓 299매다.

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국가적 행사인 동계올림픽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복지 증진 차원에서 기획했다"며 "올림픽 기간 중 설 연휴가 끼어있는 만큼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지역에 남을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화디펜스 테크데이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화디펜스

한화디펜스 직원 성과 시상 '테크데이'

한화디펜스는 한 해 동안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둔 임직원에게 시상하는 '테크데이'를 최근 개최하고, 올해의 학술상에 공진기 발란싱 연구로 특수를 출원한 광전자팀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의 학술상은 한 해 동안 출원한 특허, 게재 논문에 대한 기술평가 및 연구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뛰어난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상이다.

최우수상은 '이온빔을 통한 공진기 질량불균일 측정 및 발란싱'에 대해 특수를 출원한 광전자팀(구일근 선임 외)이 수상했다.

또한 1년간 분과모임, 세미나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연구에 매진한 '재료 및 방호기술 분과(김홍진 수석 외 16명)'가 기술그룹 최우수 활동상에 선정됐다. /정은미 기자

대한상의 경제발전 위해 상공-무역-해운 상생 협약

수출·제조·해운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해양수산부, 한국무역협회, 한국선주협회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상공-무역-해운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춘 해수부 장관, 김경주 무역협회장, 이윤재 선주협회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상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상공인과 무역인은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수송 비중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선주 및 해운기업은 효율적인 해상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조건이나 서비스 등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해양수산부, 한국무역협회, 한국선주협회와 함께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상공-무역-해운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은미 기자

신점[神占] 운세 2월 14일 (음 12월 29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 쥐** 60년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72년생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84년생 여행을 통해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96년생 뜻밖에 행운을 얻게 됩니다.
- 소** 61년생 대화에 설득력이 있는 하루입니다. 73년생 금전운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85년생 후배들을 만나 금전을 지출하게 됩니다. 97년생 감정에 빠지면 큰 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 호랑이** 50년생 가는 길이 험해 어려움이 따릅니다. 62년생 여행은 마음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74년생 금전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86년생 공공기관을 조심하세요.
- 토끼** 51년생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63년생 몸조심, 말조심 해야 합니다. 75년생 술자리에서 과음은 독이 됩니다. 87년생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세요.
- 원숭이** 52년생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하세요. 64년생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세요. 76년생 부업을 고려해 보세요. 88년생 조그만 인연이 많은 날입니다.
- 뱀** 53년생 배우자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65년생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보다 이해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77년생 지병이 있으면 주의하세요. 89년생 중심을 잃지 마시고 한곳에 집중하세요.

- 말** 54년생 주변 일에 깊게 개입하지 마세요. 66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하루입니다. 78년생 집 안에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90년생 시작 전에 미리 결론을 지으려 하지 마세요.
- 양** 55년생 서먹한 사람과 사이가 좋아집니다. 67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세요. 79년생 일거리가 밀려와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91년생 급한 중 당신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 원숭이** 56년생 오랜만에 활력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68년생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세요. 80년생 고집은 하는 일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92년생 소극적인 자세로 행동하도록 하세요.
- 닭** 57년생 과로로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69년생 두뇌회전이 빠른 하루입니다. 81년생 도전정신이 왕성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93년생 최근에 만난 사람을 조심하세요.
- 개** 58년생 잠깐 기력이 돌아왔으나 고난이 닥쳐옵니다. 70년생 본인의 계산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82년생 미래를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94년생 사업운이 없는 하루입니다.
- 돼지** 59년생 자식들의 건강에 신경 쓰세요. 71년생 답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83년생 돈이 새는 것을 잘 확인하고 처리하세요. 95년생 두 사람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가면 좋습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어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2	7					6	8
9	4		5			3	2
		3	8				
	4			2			
3	2					8	1
	7		6	9			
		5	6				
8			9				6
	5	2	3	4		1	

	5	6				1	4
3			5	7			8
4		3	2				1
	1	3				9	6
8			4	6			5
5			6	4			7
	7	4				3	2
			7	3	9		

스도쿠 정답

6	1	8	7	5	2	9	5	1
9	5	7	1	6	4	2	8	3
1	2	5	9	8	5	1	6	7
5	7	6	2	9	8	1	1	5
1	8	9	5	1	7	6	2	4
5	1	2	5	1	6	7	8	9
7	6	1	8	2	5	9	1	
2	5	1	2	5	9	8	7	6
8	9	5	6	7	1	5	2	3
9	5	7	6	5	1	2	8	1
6	2	5	8	5	1	7	1	9
1	1	8	7	2	9	6	5	5
5	5	2	9	1	7	1	6	8
7	9	6	5	1	8	5	1	2
1	8	1	2	6	5	9	7	7
8	6	9	1	7	5	1	2	5
2	7	1	5	8	6	9	5	1
5	1	5	1	9	2	8	7	6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四季



구정, 한 해의 진정한 시작

2018년 구정 연휴는 지난 추석 연휴에 비해 단출하게 느껴진다. 우리나라도 대체 휴일제도가 시작된 이후 한국인의 대표 명절인 구정과 추석 때는 최소 5일 이상의 휴일을 지내게 된 경우가 적지 않은데 모처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이틀만 연휴가 되는 셈이니 이를 서운해 할 사람들도 있겠다. 이렇게 신정과 구정(舊正)을 쇠는 나라는 글썽, 잘은 모르지만 중국과 우리나라 정도이지 않을까 싶다. 사실 구정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양력 설날과 구별하기 위해 구정이라는 단어를 써야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필자는 명리학자로 음력과 매우 친숙하므로 구정이 와야 정말 새해 같다고 느끼고 있다. 물론 절기적으로는 입춘부터 1월로 치고 있으니 태양력의 위력이라 말할 수 있기도 하다. 즉 우주 속의 지구는 태양과 달의 영향을 고루고루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니 오죽하면 우리의 선조들은 해를 가리켜 일광변조 소재보살(日光變造 消災菩薩)이라 불렀고 월광변조 식재보살(月光變造 息災菩薩)이라 칭하였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믿음에 대한 방증인 것이다. 달력적으로 신정과 입춘은 거의 35일 차이가 나는데 반해 입춘과 구정은 열흘에서 보름 안팎으로서 낱파 터울이 훨씬 가깝다. 구정이야말로 입춘과 때를 비슷이 하며 봄의 기운을 댕댕 안고 새 해를 맞는 것이다.

실생활에 있어서도 혼사날이나 길일을 잡을 때나 운명을 예측하는 사주명조를 따질 때도 음력이 기준이 되니 것이니 그 의미가 당연히 크다. 지금 세대는 명절 자체를 휴일의 개념으로 여기며 해외여행을 떠난다던지 하는 연휴의 의미로만 반가와 하는 것 같지만 필자에게 있어 구정은 말 그대로 설날이다. 이제는 지천명을 훨씬 넘기고 이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가긴 하지만 여전히 설날은 설레임이자 무엇보다 기대로 시작하게 된다. 지나간 시간들보다 뭐가 더 좋아도 좋고 더 발전될 것이라는...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아 각오를 다지듯 말이다. 원래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중이지만 사람들은 오고 가는 시간의 분수령을 정해서 희망을 다지는 것이다. 그러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함을 알 듯 올 설날도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해보려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세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새 해의 첫날 아침, 진정 2018 무술년 한 해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원하는 일 원만성취하시는 감사한 한 해를 기대해본다. 독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